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표지 탐색하기

<너 딱 걸렸어!>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2) 책 제목 '너 딱 걸렸어!'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어른들은 장애아들이 불쌍하니까 ㉠무조건 잘해 주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 아이들은 장애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대하려고 해. 그걸 어른들이 막아서면서 “그러면 안 돼. 개는 몸이 불편하니까, 네가 이해해 줘야 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도 알았지. 나는 그런 어른들의 생각이 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장애아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랑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어.

① 윗글로 보아, 어른들이 '장애아'를 ㉠처럼 대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윗글로 보아,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나요?

⇨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너 딱 걸렸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오후 네 시쯤 지우가 깜짝 (㉠)을 하였다.
- 지우는 (㉡)이 패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 나는 날카로운 엄마의 (㉢)을 받고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 “너 대단해. 효진이 (㉣)를 맞출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거든. 진짜, 너 대단해.”
 - 서먹서먹하던 교실 분위기가 막상 반장 후보 (㉤)이 시작되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아올랐다.
- (나) “다술아, 어디 아파? 왜 그렇게 힘이 없니? 아프면 엄마한테 말해. 저번처럼 또 응급실로 가서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 아침에 나를 바라다보는 엄마의 눈빛이 ㉠자못 심각했다.

1)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참고하여 (가)의 빈칸 ㉠~㉤에 각각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 불우물 : ‘보조개’를 이르는 말.
- 출현 :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임.
- 눈총 : 눈에 독기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
- 추천 :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 비위 :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또는 그러한 기분.

- ㉠ :
- ㉡ :
- ㉢ :
- ㉣ :
- ㉤ :

2) (나)의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꽤 ② 썩 ③ 매우 ④ 아주 ⑤ 그다지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너 딱 걸렸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아이고, 이제 엄마 걱정 하나 덜었네. 내가 효진이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 판이네.” / 엄마는 요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교회에 가서는 아예 ㉡나발을 불고 다녔으며, 친척들하고 통화할 때도 그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다.

•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혀를 차기도 하고, 병신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안됐다 하고 하기도 하고……

(나) “나, 이것만 먹고 갈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피자 두 조각을 삼키자 부글부글 끓던 화가 다 가라앉았다.

1) (가)의 밑줄 친 표현이 지닌 뜻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세요.

㉠ 입에 달고 살았다(다니다)

①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낸다.

㉡ 나발을 불고(불다)

② 당치 않은 말을 하거나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말을 하다.

㉢ 혀를 차기도(차다)

③ 말이나 이야기 따위를 습관처럼 되풀이하거나 자주 사용하다.

2) (나)의 밑줄 친 ‘가라앉았다.’의 기본형인 ‘가라앉다’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다음 중 (나)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나요?

- ① 바람이나 물결이 잠잠해지다.
- ② 붓거나 부풀었던 것이 줄어들어 본래의 모습대로 되다.
- ③ 흥분이나 아픔, 괴로움 따위가 수그러들거나 사라지다.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몸이 불편한 ‘효진이’

다음 <너 딱 걸렸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선생님이 효진을 소개했다.

“효진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하게 되었어. 올해 우리 반이 되었으니까, 잘 도와주기를 바라. 물론 학교에서는 특수 교사가 있지만 효진보다 더 힘든 친구들이 여럿이라 혼자 다 도와줄 수가 없어. 효진은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잘 도와주길 바란다.”

(나) 나는 선생님의 말이 끝났어도 손을 들지 못했다.

“어서 손을 들어 버려!” / “난 자신 없어!”

마음속에서는 그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다.

1) (가)의 내용으로 보아, ‘효진이’의 몸을 불편하게 만든 사건은 무엇인지 쓰세요.

⇒

2) (가)에 소개된 ‘효진이’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효진이’는 몸이 불편한 친구이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잘 한다.

3) ‘나’(다솔)는 학교에서만 활동할 ‘효진이 도우미’를 뽑는다는 ‘선생님’의 말에 (나)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써 보세요.

⇒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효진이 도우미’가 된 ‘나’(다솔)

다음 <너 딱 걸렸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마킹(동현)** :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이건 여자애들이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아? 효진이 화장실 갈 때도 도와줘야 하는데. 남자애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

접신(지윤) : 그렇다고 남자애들이 다 빠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킹(동현) : 하지만 실제로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방이나 들어주면 모를까?
다시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 나는 숨이 막혔다.

솔방울(다솔) : 내가 할게. /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야 말았다.

(나) 효진은 왼손으로 돌멩이를 들고 땅바닥을 심하게 긁어 대다가 갑자기 패대기 쳤다. 내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하자 그냥 얼굴을 무릎 틈에다 묻어 버렸다.

‘내가 뭘 실수한 걸까?’ /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한참 뒤에서야 효진이가 얼굴을 들었다.

1) (가)의 대화로 보아, ‘효진이 도우미’는 결국 누가 하기로 했나요?

⇒

2) (나)의 상황에서 ‘효진이’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효진이’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써 보세요.

다솔아, 미안. 그냥..... 갑자기.....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을 보니까 갑자기.....
난 저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

⇒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이해할 수 없는 ‘효진이’

다음 <너 딱 걸렸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무리 지나도 효진이가 나오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내가 화장실 문을 잡아당겼다. 문이 열렸다. ㉠효진이는 변기 뚜껑을 덮어 놓고 그 위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어찌나 ()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 “다솔아, 지금 우리 집에 좀 와 줄래?”

나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효진아,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효진이한테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 효진이는 너무도 태연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심심해서 놀자고.” / “뭐? 심심해서 그냥 불렀다고?”

1) 수업시간에 배가 아프다던 ‘효진이’가 ㉠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나’(다솔)의 마음이 잘 표현되도록 (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 ① 기쁘던지 ② 초조하던지 ③ 애처롭던지
- ④ 신기하던지 ⑤ 황당하던지

2) (나)~(다)의 상황으로 보아, ‘나’(다솔)를 대하는 ‘효진이’의 태도는 어떠한지 써 보세요.

⇒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효진이’에 관한 ‘나’와 어른들의 생각 차이

다음 <너 딱 걸렸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우야,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효진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어. 개네 집에 지지라는 엄청 큰 개가 있거든. 그 개를 혼자 목욕시키는 걸 보고, 효진이가 일부러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 효진이기도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하더라고. 근데 효진이 말을 듣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무리 효진이를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 워낙 자기 행동이 느리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나 봐.”

나는 효진이랑 있었던 일을 지우한테 들려주었다.

“그래서 더 이상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무조건 효진이를 도와주는 게 잘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 가령 일어나서 서너 걸음만 움직이면 되는 거리에 있는 물건도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시키거든. 그때마다 이게 옳은가 그런 생각을 해. 그렇다고 효진이한테 ‘그건 네가 가져와라’ 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선생님이 나 효진이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 어른들은 무조건 효진이를 도와줘야만 한다고 말할 테고.”

1) ‘효진이’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효진이’를 대하는 ‘나’(다솔)와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윗글에 드러난 ‘나’(다솔)의 대화를 참고하여 써 보세요.

‘효진이’를 대하는 ‘나’(다솔)의 생각	‘효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생각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몸이 불편한 친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다음 <너 딱 걸렸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리고 효진아, 나 이 말도 꼭 하고 싶었어. 있잖아, 나 2학기부터는 달라질 거야. 물론 너하고 더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근데 1학기 때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돕지 않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지지도 혼자 목욕시키고, 나보다 더 음식도 잘해 먹고 그러잖아?"

나는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담아 두었던 말들을 몽땅 끄집어냈다.

(나) 양다솔, 넌 나한테 딱 걸렸어. 나도 너한테 할 말 무지무지 많아.

지금 학교로 가고 있거든? 나 혼자 걸어가서 나 혼자 마을버스도 탔어.

4교시 끝나기 전에는 갈 테니깐 그때까지 기다려!

1) '효진이 도우미' 역할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나'(다솔)가 (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효진이'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를 하세요.

미안함

후련함

후회함

2) (나)에서 평소와 달라진 '효진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

3) 여러분 주변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가)에 드러난 '나'(다솔)의 태도와 비교하여 써 보세요.

⇒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너 딱 걸렸어!>에 나오는 다음 그림을 보고 1)~3)의 물음에 답하세요.



1) 어떤 장면인가요?

⇨

2) 그림에서 '효진이'의 표정은 어떤가요?

⇨

3) 이 그림을 보고 그동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들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장면을 보고 깨닫게 된 점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4) 자신이 '효진이 도우미'가 되어 '효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준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효진이'가 할 수 있을지 '혼자 할 수 있어!'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혼자 할 수 있어!>

-
-
-



너 딱 걸렸어!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이상권 글 / 박영미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교실 책상에 한 여자 아이가 웃으며 앉아 있고, 그 아이를 다른 여자 아이가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2) 우리 또래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인 ‘너 딱 걸렸어!’를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책 제목이 친근하게 느껴졌고 책의 내용 또한 재미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3) ① 장애아는 몸이 불편하고 불쌍하기 때문이다. ② 몸이 불편한 장애아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아이들의 시선이 담겨 있을 것 같다.
2쪽	1) ㉠ : 출현, ㉡ : 불우물, ㉢ : 눈총, ㉣ : 비위, ㉤ : 추천 2) ⑤
3쪽	1) ㉠ : ③, ㉡ : ②, ㉢ : ① 2) ③
4쪽	1) 교통사고 2) 도와주어야 3) (예시답안) 내가 이 상황이었다라면 나도 ‘나’(다술)처럼 몸이 불편한 ‘효진이’를 책임지고 말아서 도와 줄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쉽게 손을 들지 못했을 것 같다.
5쪽	1) ‘나’(다술) 2) (예시답안) 뛰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 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효진이’가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6쪽	1) ⑤ 2) (예시답안) ‘효진이’는 ‘나’(다술)가 분명히 약속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자기가 편리한대로 행동하고, ‘나’(다술)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등 이기적이다.
7쪽	1) 몸이 불편해서 행동이 느려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2) •‘효진이’를 대하는 ‘나’(다술)의 생각 :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해야 한다. •‘효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생각 : 몸이 불편한 친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8쪽	1) 후련함 2) (예시답안) ‘나’(다술)의 말을 듣고 난 ‘효진이’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보기 좋다. 3) (예시답안) 내 주변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나는 ‘나’(다술)처럼 ‘효진이’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나의 고통을 참아가며 무조건 도움만 주려고 했을 것 같다.
9쪽	1) ‘효진이’가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2) (예시답안)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이다. 3) (예시답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강아지를 씻기는 ‘효진이’의 모습을 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예시답안) • 화장실 혼자서 가기 • 간식 스스로 챙겨 먹기 • 급식 먹기 전에 물 떠 오기 • 등•하교 혼자 해 보기 등